

미국발 공포…주가·환율 '요동'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 민감한 반응

8월 금리인상 불가…불안심리 지속

공포 심리가 국내 금융시장을 패널로 몰아갔다.

미국이 체무한도 증액 협상을 타결하면서 디플트(채무불이행) 국면을 모면했지만 경기가 침체의늪에 빠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았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5일 전날보다 74.72포인트(3.70%) 급락한 1943.75에 거래를 마감했고, 서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70원 오른 1067.40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5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스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는 미국 신용등급을 기준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S&P는 미국이 부채상한 증액을 타결했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충분치 못한 결정이라 평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파장…금리인상 없을 듯=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더블 딥(이중침체)과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에 다른 나라 금융시장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주요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타격이 그 어떤 나라보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최근 주식과 환율, 금리가 요동을 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한국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채권시장 참가자들도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로'(0)로 보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삼고 있고 7월 소비자 물가가 4.7%로 월별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은이 8월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당분간 불안지속…정부 축각=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와 부채 위기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은 외국인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불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외국인이 경기 불안을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내다 팔면

서 자금(원화)이 다시 외환시장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도 금등세를 연출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는 이상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국내 주식 펀드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펀드는 지난 한 주 동안 6.52%의 손실을 냈다. 순자산의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 펀드 660개가 모두マイ너ス(-) 수익률을 나타낸 것.

유형별로는 대형주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가장 부진했다. '차화정' (자동차·화학·정유)을 중심으로 대형주 지수가 6.56%나 떨어진 탓이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현대차 '엑센트 영 가이 선발대회'

현대차, '액센트 영 가이(Young Guy) 선발대회 시즌2' 개최
현대자동차가 소형 프리미엄 '액센트'의 일반인 광고 모델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도전! 엑센트 영 가이(Young Guy) 시즌2'의 참가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델들이 엑센트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신용등급 하락…한국경제 위험도 급상승

금융기관 차입 여건 불리 리스크 끌듯

미국·유럽 재정 위기의 여파와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의 차입 여건이 매우 불리해진 탓에 은행 리스크가 급상승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정부 발행 외화채권에 대한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5일 현재 115bp(베이스 포인트, 1bp = 0.

01%)로 지난해 11월 30일(122bp)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금융상품으로 위험도가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은행들의 차입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움직임이 숨 가

쁘게 전개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의 재무 당국자들은 7일 오전(한국시각) 각각 콘퍼런스콜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낙관론보다 침체 우려가 크기는 하지만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국내 시장이) 패닉(공황) 상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광양항 화물처리 급증…올 목표 230만TEU 무난

7월 16.5% 늘어

광양항의 올해 화물처리 목표량인 23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7월 한 달 광양항을 통해

처리한 화물이 17만5173TEU로 6월 중 처리물량(15만352TEU)에 비해 16.5%나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수출화물의 경우 전달에 비해 34.8% 늘어난 8만797TEU였으며 수입화물은 6.2% 증가한 7만779TEU, 환적화물은 2.5% 증가한 2만284TEU로 집계

됐다.

목포신항도 수출용 자동차 19만 3881RT(Revenue Ton·선주가 부과나 무게증 유리한 것을 적용), 컨테이너 1만9696RT, 일반화물 2만4295RT 등 총 25만455RT를 7월에 처리해 전달에 비해 12.6%가 증가했다.

광양·목포신항의 화물처리 물량 증가는 최근 일부 대형선사의 화물량 개편작업이 완료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전남도는 하반기에도 물동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항의 경우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동북아 10대 국제 물류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모닝' 1위

독일 수입 경차 모델 비교 평가

기아차는 신형 모닝(수출명 피칸토)이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인 아우토 빌트가 시행한 수입 경차 모델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우토 빌트는 최근 발행한 29호판에서 독일에서 판매되는 수입 모델을 대상으로 안전성, 편의성, 외장 디자인, 실내 거주성 등의 항목을 비교 평가했으며 모닝은 311점을 얻어 경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아우토 빌트는 "기대를 뛰어넘는 넓은 실내 공간 및 우수한 안전성과 편의사양을 바탕으로 경차도 중대형 차 못지 않게 진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모델"이라고 평가했

다.

모닝에 이어 현대차 i10이 294점으로 르노 트윙고(287점), 피아트 500(284점), 피아트 판다(278점) 등을 제치고 2위에 올라, 현대기아차는 자동차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경차 경쟁력을 입증했다.

모닝은 이와 함께 아우토 자이퉁이 17호판에서 1만 유로 이하 차량 7개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평가에 서도 르노 트윙고, 포드 KA 등 경쟁

차종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편 기아차 모닝은 지난달 아우토 빌트의 '유럽 대표 경차 6차종 비교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세금 납부, 신용카드·인터넷이 대세

IT기술의 발달로 신용카드와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내는 전자납부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

7일 국세청이 내놓은 '2010년 전자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를 통해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은 8452억원으로 2009년(2246억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카드 납부 건수는 같은 기간 27만 건에서 65만건으로 늘었다.

카드 세금 납부가 처음 시행된 2008년 납부건수 5만명, 납부액 407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3년새 12배,

납부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 온라인 세금 조회·신고 및 납부사이트인 홈택스서비스 이용건수는 202만8000건, 금액으로는 32조 7456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각각 13%, 10% 가량 늘었다.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은 119만건, 10조5000억원으로 첫 10조원 벽을 넘었고 ATM 납부(1조910억원)도 10% 가량 증가했다.

반면 카드대출로 낸 세금은 54억원으로 1년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대기업도 고졸 채용

SK케미칼 등 공고 잇따라

금융업계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공채 계획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졸 인재를 찾는 대기업들의 채용 공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7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SK케미칼과 두산건설, 그린손해보험 등이 최근 일제히 고졸 학력 사업부에 나섰다. SK케미칼은 생산관리를 맡은 신입사원을 12월까지 모집한다. 근무지는 안동이며, 제약 관련 업무 경험자는 우대 한다.

두산건설도 CPE 제작, 강교제작, 경영지원 등의 분야에서 고졸 학력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린손해보험도 고졸 정규직 신입사원을 찾는다. 모집 부문은 영업, 관리, 업무, 보상 등으로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이 밖에 CJ텔레비전이 정규직 상담사원을 모집한다.

로또복권

(제453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수첨				
12	24	33	38	40	42	3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262,732,375	5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2,378,065	36			
3	5개 숫자 일치	1,335,419	1,412			
4	4개 숫자 일치	50,000	69,250			
5	3개 숫자 일치	5,000	1,096,036			

www.ah-english.com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